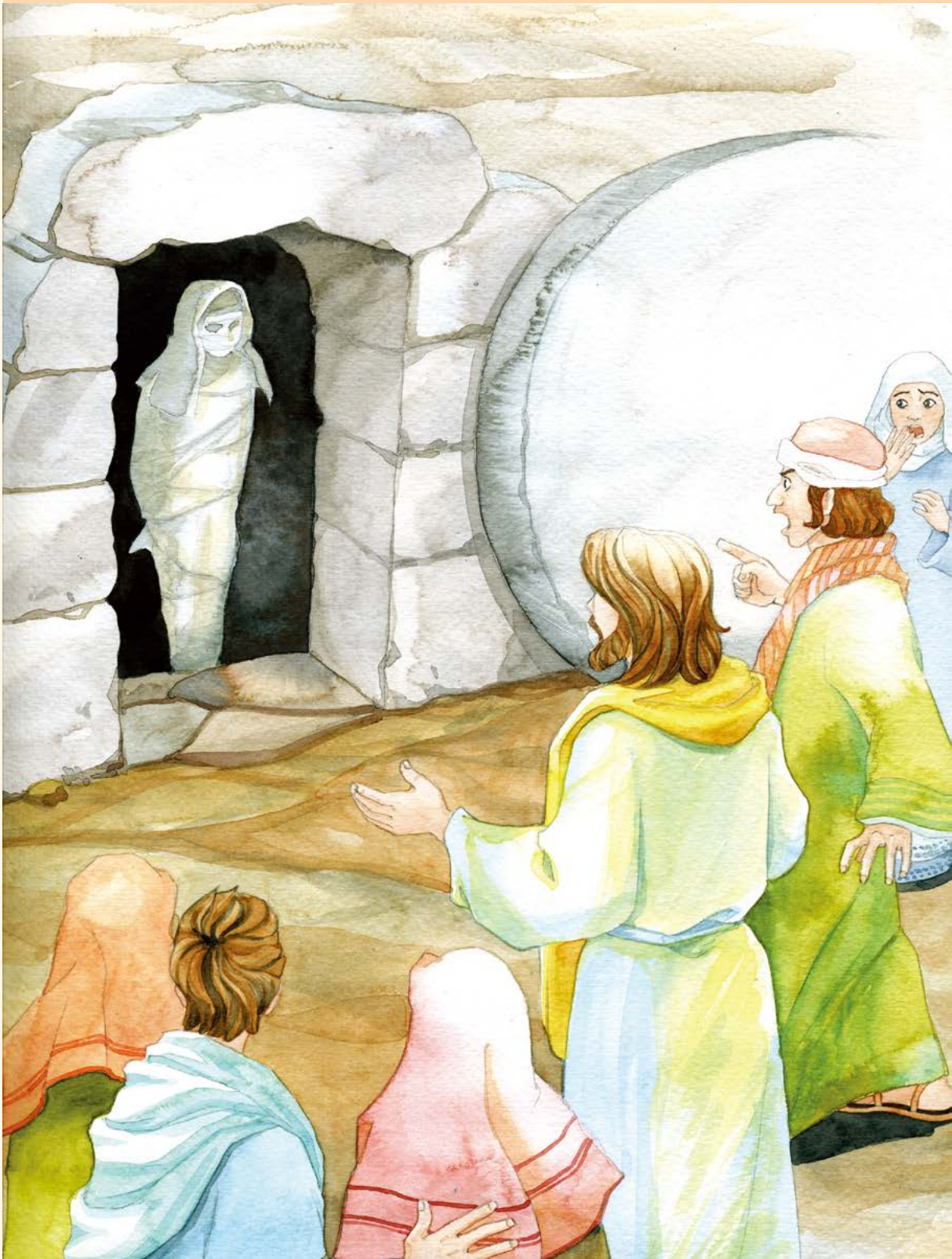


33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

요한복음 11:1~44



나사로야, 나오너라!
그러자 죽었던 나사
로가 온 몸이 베로
묶여져 있는 채 무덤
에서 나왔습니다.

베 다니에 사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.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.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듣고 말씀하셨습니다.

“이 병은 죽을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니라.”

예수님께서서는 나사로를 사랑하셨지만 곧바로 나사로의 집으로 가지지 않고 이틀을 더 기다리신 후 그의 집으로 찾아 가셨습니다. 예수님께서 그 곳에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있는지 4일이나 되었습니다.

마르다: “예수님께서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셨더라면 저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.”

예수님: “네 오빠가 다시 살 것이다.”

마르다: “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 줄을 알고 있습니다.”

예수님: “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,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?”

마르다: “주님, 믿습니다.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.”

성
경
암
송

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
하신대 (요한복음 11:40)

마리아와 유대인들도 마르다와 같은 말을 하며 예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. 예수님께서서는 우는 그들을 보시고 가슴 아파하시며 나사로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물으셨습니다.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께서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.

예수님: “돌을 옮겨 놓으라.”

마르다: “죽은 지 4일이 되어 벌써 썩은 냄새가 납니다.”

예수님: “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?”

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서는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기도하신 후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.

예수님: “나사로야, 나오너라!”

그러자 죽었던 나사로가 온 몸이 베로 묶여져 있는 채 무덤에서 나왔습니다.

예수님: “풀어놓아 다니게 하라.”

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.



예수님께서서는 나사로의 죽음이 무엇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하셨나요?



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, 나사로는 죽은 지 며칠이 지났나요?

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은 지 3일이 지나면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.
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사람들은 나사로를 살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.



예수님께서서는 열려진 무덤을 향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?



나사로는 어떻게 되었나요?

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기적을 통해 우리는 모든 생명을 하나님만이 주관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.

나는 ■■■ 이요 ■■■ 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
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(요한복음 11:25-26)



오늘의 말씀을 배우고



우리를 살리신 예수님



그 예수님께서서는 죽어 있던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도 살리셨습니다.



내 영혼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죽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어떻게 살아나게 되었나요?

.....
.....

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(에베소서 2:1)

예수님께서서는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베를 풀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.
살아난 나사로가 자유롭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곁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어야 했습니다.
이처럼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나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.



내 주위에 나보다 나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나요? 이름을 적어보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지 적어 보세요.

이름				
도와주어야 할 일				



알아볼까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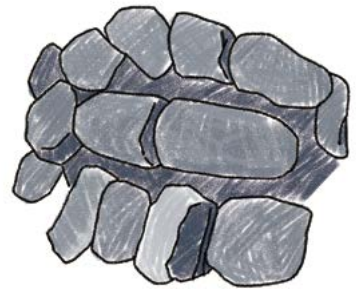
이스라엘 무덤의 형태

이스라엘에는 많은 형태의 무덤이 있었습니다. 나사로의 시체는 동굴 무덤에 있었습니다.

- ▶ 구덩이 : 구덩이를 파고 시체를 묻었습니다.
- ▶ 석관(고인돌) : 돌을 두 개 세우고 그 위에 넓적한 돌을 얹어서 무덤으로 사용했습니다.
- ▶ 지하묘실 : 땅을 파고 지하에 둥근 방을 만들어 시체를 두었습니다.
- ▶ 항아리 : 시체를 구부려 항아리에 넣었습니다.
- ▶ 동굴 : 자연적으로 생긴 동굴이나 혹은 사람이 동굴을 파서 만들어 시체를 두었습니다.
- ▶ 카타콤 : 로마 시대에 이르러 무덤이 커지고 복잡해졌습니다.
그래서 복도가 있고 복도의 양 옆에 시체가 하나씩 들어갈 수 있는 방을 만들었습니다. 굉장히 크고 복잡한 무덤입니다.
각 시체실은 벽돌이나 큰 돌로 막을 수 있었습니다.



동굴 무덤



항아리 무덤

부모님 난

선생님 난

